

이기는 삶

설득력

고객에게 자사 제품의 우수성을 설명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고집피우는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득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설득력이 높은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람을 끄는 비상한 능력이 있다. 그들은 상대방이 자기의 말을 믿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좋아하게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득력이 뛰어난 것은 타고난 본능이라고 생각한다. 잘 생긴 외모, 사회성이 유별나게 좋은 성격 등은 배움으로 터득할 수 없는 타고난 축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자신이 노력하기 나름이다. 확실히 무언가를 잘하는 사람은 똑똑해 보이고 잘생겨 보인다.

설득력이 높은 사람들은 먼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준다.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신뢰하고 좋아하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표현하지만 결코 상대방에게 강요하거나 공격하

지 않는다. 상대방의 생각을 강제로 바꾸려 하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한 설득력이 높은 사람들은 조르지 않고 구걸하지도 않는다. 정말 옳다면 언젠가는 이해하고 설득될 것이기 때문이다.

설득력이 높은 사람은 남의 말을 잘 경청한다

상대를 잘 파악해야 설득력을 높일 수 있으며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은 설득력이 가장 높다

다.

설득력이 높은 사람은 설득해야 할 대상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본다. 그리고 그 정보를 토대로 상대방과의 소통을 준비한다. 부끄러워하는 사람 앞에서는 말을 부드럽게 하고, 성격이 강한 사람 앞에서는 자기도 적극적인 어휘력을 쓴다. 그리고 시각적 도구를 적극 활용한다. 사람들은 시각적 요인이 부여된 것에 더 쉽게 설득된다. 설득력이

지가 더 중요한 것이다.

무엇보다 웃음은 전염성이 높다. 상대방이 당신을 신뢰하고 좋아하기를 바란다면 대화 중에 웃도록 하라. 그러면 상대방은 자신도 모르게 웃음을 짓게 되고 동시에 기분이 좋아진다. 기분이 좋아지면 설득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여기에 더하여 상대방이 옳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다.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자세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여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당신의 이미

지를 만들어준다. 상대방의 말에 대해 “무슨 소린지 이해가 되네요.”라고 하면 상대방은 강요하지 않을 것이라는 느낌을 갖게 된다.

다음으로 상대방의 마음 문을 열게 하는 방법은 상대방의 생각을 묻는 것이다. 사람들은 상대방이 자기의 말에 경청하는 것은 물론 그 의미를 이해하는지 궁금해 한다. 몇 개의 적절한 질문과 “아, 그러시군요!”라는 말의 효과는 실로 대단하다. 또한 설득력 높은 사람들은 상대방의 이름을 기회가 될 때마다 대화에 넣는다. 상대방이 자기 이름을 부를 때 사람들은 인정받는 느낌을 받는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하였듯이 사람은 겪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그 사람과의 관계가 제대로 성립된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대화가 성공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아진다.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설득력이 높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믿음에 가는 진실한 사람을 신뢰하게 된다.\*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Mind is Spirit! 마음이 곧 영이다!

과학자들은 마음이 곧 영혼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피의 작용은 마음의 작용을 초래하고 그 반대로 마찬가지로 말한다.

▶ Scientists say that mind is spirit, and the operation of the blood results in operation of the mind, and vice versa.

그러나 그들은 피가 영혼이라고는 말하지 않는다. 피의 작용이 마음을 초래함에 따라 그들은 혈류 주머니를 'heart' (심장, 마음)라고 부른다.

▶ But, they don't say that the blood is spirit. As operation of blood causes operation of mind, they call the pocket of blood 'heart'.

이것은 피가 곧 마음임을 보여준다. 피부와 신체는 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것은 신체 또한 마음임을 의미한다. 마음은 영혼이요 영혼이 피요 피가 곧 육이다.

▶ This shows that blood is mind. Skin and body are composed of blood. This means that body is also mind. Mind is spirit, spirit is blood, blood is body.

그래서 육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말한다.

▶ So body itself is God. Therefore, the Bible says that you should be born of the spirit.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육신 그 자체가 영임을 뜻한다.

▶ To be born of the spirit means that we should be born of the Spirit of God. It also implies that the body itself is spirit.\*

by Al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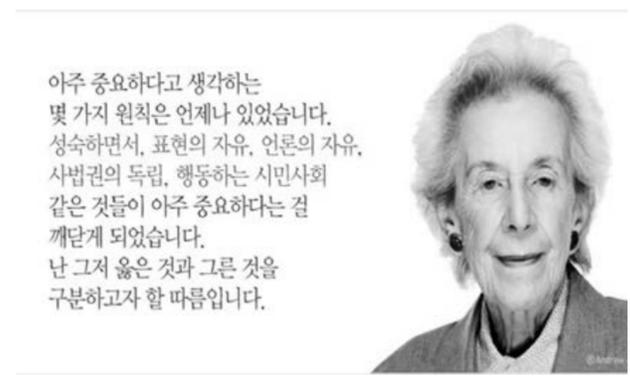
작은 용기, 세상을 바꾼다

세상을 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데에 반드시 큰 용기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평범한 사람들이 낸 작은 용기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된 경우가 많다.

헬렌 수즈먼(Helen Suzman)이 그렇다. 그녀는 아파르트헤이트(흑인차별정책) 철폐를 주장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백인 정치인으로서 36년 동안 의회직을 수행하면서 아파르트헤이트 철폐를 위해 싸워 백인의 양심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녀가 활동한 때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파르트헤이트를 국가정책으로 세워 흑인들의 인권을 철저히 탄압하였다.

불의와 타협 안한 헬렌 수즈먼

정부의 이러한 탄압에 대해 만델라를 중심으로 결성된 아프리카인의 국민의회는 자체 군대를 조직해 군사행동을 취할 준비를 했다. 그때 정부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든지 재판 없이도 사람을 구금할 수 있는 구금법을 1963년 4월 의회에 상정하였고, 그녀는 야당마저도 찬성하는 구금법을 유일하게 반대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그녀를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망하게 만드는 살인자나 폭력범죄자를 보호한다고 비난을 했다. 격분한 의원들은 그녀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최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몇 가지 원칙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상속하면서,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법권의 독립, 행동하는 시민사회 같은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난 그저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헬렌 수즈먼(사진) 앤드류 주커만이 그녀를 인터뷰하고 찍은 사진이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퍼옴

의 정치적인 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녀는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고, 끝까지 투쟁하였고, 마침내 1989년 새롭게 선출된 데 클레르크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남아프리카인들의 완전한 시민권을 실현하겠다는 연설을 듣게 된 후 정계를 은퇴하였다. 그 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만델라를 대통령으로 선출하였다.

그녀는 엄청난 다수가 자신을 거부하는 상황 속에서 36년 동안, 그중 13년은 홀로 불의에 맞서는 투쟁을 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1978년 유엔 인권상 수상을하였으며, 1989년 대영제국 훈장을 받았다("작은 용기, 세상을 바꾼다" 책 참조)

불의한 일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승리제단은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곳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과 실수를 내 잘못과 실수로 여겨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 즉 불의(不義)한 상대와 타협을 하는 것도 누구든지 내 몸처럼 여기는 것에 해당하는가 여부이다. 상대의 불의를 내 죄로 여기는 것은 자유를 법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불의에 타협하는 것은 자유를 법을 지키는 행위이다. 불의와 타협하는 것을 동참죄라고 한다. 또한 상대가 불의한 일을 저질러놓고도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

못을 모르는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불의하다고 알려 줘야 한다.

조희성 구세주께서는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다. 군대가 전 미군부대에서 알바를 할 때 거액의 뇌물을 주고 물품을 빼돌리려는 업자의 요구를 결연히 거절하였고, 육군 장교 시절 우연히 방문한 고모님에게서 강박이 고모님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그를 혼내주었고, 소사신앙촌에서 음주와 흡연을 하는 비신앙인들을 관내에서 결코 음주와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또한 자신의 행동이 옳고 그름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알려줄 때에는 반드시 왜 그러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셨고, 누군가를 도와줄 때에도 그가 도움을 고마움을 모르면 도움으로 말미암아 입게되는 은혜를 설명해 주셨다.

이 세상은 마귀가 집권하며 다스리는 죄악세상이므로 불의가 도처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다. 불의한 것에 눈감고 모른 채하는 것은 동참죄이다. 승리제단 신도들은 사망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작은 용기를 내어야 한다. 이 세상을 집권하고 있는 마귀는 결코 호락호

락 쉽게 넘어오지 않을 것이다. 그 마귀의 세력과 맞붙어 싸워야 한다.

불의에 맞서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 세상을 영생의 세상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 생명을 내걸어야 한다. 불의에 맞서 싸우려면 때로는 엄청난 저항이 있기도 하다. 사망이 지배하는 이 세계는 생명을 내걸지 않고서는 변화될 수 없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개의 사람들은 피하고 보자고 생각하지만 의인들은 필사즉생(必死即生)의 불굴의 투지로 맞서 싸운다. 비록 죽을지라도...

둘째, 대의(大義)를 좇아야 한다. 의인은 힘과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대의를 믿고 힘과 세력에 맞서지만 소인배들은 대의를 저버리고 힘과 세력에 굴복하여 비굴한 처신을 한다. 소인배들은 힘이 센 쪽으로 쩍싸게 가서 붙는다. 작은 용기로 세상을 바꾼 사람들에게는 항상 주변 사람들이 온갖 이유를 들어 반대하며 힘을 꺾으려고 한다. 그

때마다 대의명분을 따라 행동해야 그것을 극복할 수 있다.

셋째, 정확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의인은 옳고 그름을 바로 분별하지만 소인배들은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정의인 지 모른다. 특히 정의와 불의가 투쟁할 때 그들은 화합을 강조하면서 정의로운 자들을 힐난하고 폄하한다. 이 세상의 정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모든 변화에는 그 변화를 이끈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다.

승리제단 신도들은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이나 완전한 세계, 지상낙원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꿈은 그러나 말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과 실천으로 이루어진다. 작은 용기가 이 세상을 바꾼다. 불의에 굴복해서는 결코 이 세상을 구세주와 우리가 연합하는 완전한 세상이 될 수 없다. 자신이 의로운 사람인지 스스로 물어보라. 의로운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없을 것이다.\*

발행인 김종만

머리맡에 두면 참 좋은 책



라준경 지음/ 값 10,800원

라준경의 '인생이야기' 휴식 같은 시

현대인은 바쁘다. 쉴 새 없이 하루하루를 보낸다. 그러다 지쳐 쓰러져 잠이 든다. 그렇게 하루를 보내는 사이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가 있는지 알지 못한다.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면 그는 죽은 사람이거나 다름없다.

이제 종설 때와 장소가 필요하다. 고대의 휴신과 영혼이 잠시 쉴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저자는 애독하는 시들 중에서 한 뼛뼛 뽑아내 자신의 감성을 녹여 일상의 잡무하여 글을 썼다. 저자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독자들의 지친 영혼에 한줌의 시원한 바람이 될 것이다. 잠들 무렵 고대 옆에 이 한 권의 책을 놓아두라. 그러면 고대는 저자가 말한 쉼 곳으로 인도되리라.

도서출판 해인



지은이 \_ 라준경

경북 대구 출생 (1970)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회복지학 수료 현) 대구 승리제단 승사 국제 신인류 문화학회 임원